

『코로나 시대를 사는 신앙』 Ⅱ 그리스도인의 종활¹을 맞이하자

✠바로로 오오츠키카 요시나오

■ 머리말

올해의 사목교서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신앙』의 구체적인 힌트로서, ‘인생의 마지막을 위한 활동’, 한마디로 ‘종활’을 다루고자 합니다. 일본사회가 급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향하는 가운데, 젊은 세대나 주위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인생을 마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고령자가 늘며, 『종활』이란, 지금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코로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회 경제 활동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의 옳고 그름을 근본적으로 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삶으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서에 근거한 『종활』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하, 문장 속에 『종활』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종활’을 뜻합니다. 『종활』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활』을 『삶』, 곧 지금을 ‘살아가는’ ‘활동’의 힌트로 참고해주시시오.

1. 생명을 풍성하게 받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 10)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넘치게 하려고’는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하고 기대를 하며 우리들의 『종활』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부나 성공에 풍족한 넘침이 아닌, 죽음을 넘어서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넘침입니다. 사도 바로로의 말처럼, 그것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 코린 13.12 참조)

¹ 종활(終活)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 활동을 뜻하는 일본 사회의 신조어.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면접을 위해 뛰어다니는 것처럼 죽음이 머지않은 사람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 즉, 종활은 단순히 임종에 대한 준비 작업이라는 의미를 넘어, 남은 인생을 고민함으로써 현재를 보다 충실히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의미.

여기서 『종활』의 최초의 작업은, 우리들의 기억에 머무르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처럼, 자기 공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냅니다. (마태 13,52 참조) 옛 것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괴로운 추억이며, 새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복음의 체험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집트 탈출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념할 때마다, 백성의 불순종에 대하는 하느님의 강한 인내와 이끄심에 감사 드리며, 다가오는 구원의 완성을 고대했습니다. 우리들의 기억의 정리도, 과거의 자신에게 충실하게 마주하면서, 마음은 미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밝게 살아가는 의욕과 희망을 복돋우며 행합니다.

2.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음

『종활』의 한가지 목적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함 속에,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의 의미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요한 14,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2코린 5,1)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초대되며, 누구든지 그 사람답게,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하느님과 함께함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이 예수님의 집에 다다르기까지,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보호자 협조자로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 14,15~21 참조) 우리들은 이 성령의 도움으로, 오직 나만이 살 수 있는, 나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달성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이 세상에 낳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되기 위하여.

3. 안식일을 기억하라

『종활』에서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게 되지만,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닌, 시간을 넘어선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마음을 넓혀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탈출 20,8)라는 주님의 십계명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에는 목표가 있음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성서 전체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 1,1)의 구절로 시작하여,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묵시 22,20)라는, 주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탄원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십니다.’ (시편 23,1-2 참조)라고, ‘안식’을 씬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태 11,28-29)라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천지창조의 목표는, 하느님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함께 사는 지복의 세상입니다. (창세 2, 1-3 참조) 이를 위하여 하느님은 시간 속에 구세사라는 수단을 준비하시어,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리스도(묵시록 1, 8 참조)의 다시 오심에 의하여, 창조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우주와 세계의 역사에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끝이 있으며, 만물은 ‘안식’ 안에 쉬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시간(인생)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펼치신 신성한 드라마이며, ‘안식’이라는 마지막 무대를 향하여 전개되어 갑니다. 그때까지의 한 순간 한 순간은,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은혜로운 때, 구원의 날’ (2 코린 6, 1-2 참조)이며, 마지막에는 백 배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르 4, 20 참조)

4. 신앙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오로 사도는 늘그막(60 세 즈음)이 되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신앙에 의한 의로움)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 3, 12-14)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느님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히브 12, 1-2 참조)

또한, 그리스도는 『종활』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루카 24, 13-24 참조)와 같이, 인생의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후회의 마음을 품었을 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붙들어, 함께 걸읍시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루카 24, 26)과, 실패가 예고된 메시아의 수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설명해 주신 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는 의미가 있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코헬렛은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코헬렛 3, 1)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태어날 때, 죽을 때’를 말합니다. (코헬렛 3, 2)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고 말한 다음,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코헬렛 3, 11)라고 경계합니다. 욥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욥 1, 21)라고, 자신의 생사는 하느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하느님은 욥의 생각이 진실인지를 시험하십니다.

루카가 기록한 것처럼, 마리아가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내롭게 곱곰이 되새긴 것처럼(루카 2, 19. 51 참조), 우리들도 초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종활』을 이어갑니다.

5. 하느님의 침묵의 의미를 묻다

『종환』에서는 하느님의 침묵을 묵상합니다. ‘한탄의 시편’이라고 분류된 시편에서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현존과,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부재가 교차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침묵이 계속되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느님의 분노나 벌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품게 되어, 하느님의 침묵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을 감정적으로 체험하기를 쉽게 바라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가렛 피쉬백 파워’ (Margaret Fishback Powers)의 ‘발자국’이라는 시에는, 꿈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던 저자의 인생이 연출됩니다. 모래사장에는 그녀와 주님의 발자국이 나란히 계속되었지만, 인생에서 괴로울 때에는 한 쌍의 발자국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주님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고 그 비통한 사건의 의미를 하느님께 계속 물으면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하느님의 침묵에 낙담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모든 체험은 하느님의 변함없는 현존을 깨닫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인간의 눈높이만으로 하느님의 활동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들이 과거의 아픔과 어두운 기억을 더듬을 때, 그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6.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종환』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고백의 정점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움은 인간의 일반적인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왜 죽는가가 아니라,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 5, 12-6, 14 참조)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에 있는 것과 동시에, 죽음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란,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이 하느님으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으로서, 인간의 죄는 용서되었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로마 5, 15) 그리고, 죄와 죽음의 지배에 있던 고난은 장차 우리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8, 18-19 참조)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사랑과 자비에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 (로마 6,3 참조)에 의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첫 선물’ (로마 8,23 참조)로 받고, 주님과 함께 ‘아빠, 아버지’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8,15 참조)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몸(1 코린 15, 35-49 참조)을 받게 될 것입니다.

7.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인생이라는 여정의 양식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 6,47)라고 말씀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 6,54)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얻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인생의 발걸음에 필요한 양식으로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들을 기르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양식은, 주님으로부터 매일 받는 모든 은총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오늘’ 필요한 성사의 선물입니다.

나아가, 우리들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시간을 초월한 하느님과 이어졌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성체성사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이미’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각자의 인생의 시간의 전체는, 그저 개인의 활동의 기록으로 채워지는 상자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느님의 영원에 맞닿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기억을 떠올릴 수 없게 되어도, 우리들은 하느님의 기록에 새겨져 있습니다. 『종환』은 한 순간 한 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연속의 의식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의 ‘지금’을 맞보게 됩니다.

8.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환』에서 인생은 당연히 이랬어야 한다는 ‘당연론’에서 졸업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르 10,17)라고 물었지만, 구원되기 위하여 당연히 무엇을 해야 한다는 물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받는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청년이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던 것은, ‘바라는 세상’과 ‘질서의 세상’과는 별개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세상’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랑의 세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재산을 내려놓도록 청년에게 권하십니다. 우리들도 사랑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찾고, 의무감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의식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에 응답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사랑의 찬가(1 코린 13, 1-13 참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종활』 이야말로, 사랑의 찬가에 있는 ‘사랑의 리스트’를 매일 떠올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 코린 13, 4-7)

9.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종활』을 실천하는 우리들은 죽어서 천국이라는 낙원에 가서, 그곳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대기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변명을 반복하고 자신을 정당화 했던 ‘미해결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우에 있던 두 죄수 가운데 하나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 34)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때, 하느님을 경외하며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루카 23, 42 참조).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 43)라고 이르시며, 이 죄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종활』은 이 회개한 죄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을 바라는 기도의 여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1 요한 4, 20) 주님의 용서를 바라는 우리들이, 형제자매를 향한 용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주님의 기도와 같이,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2 베드 3, 8-10) 『종활』 이야말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만남을 맑은 사랑의 친교로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왔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인생이었다고 알게 되었다면, 화해해야 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나,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속으로 용서를 청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청합시다.

10. 나의 기쁨이신 하느님께서로

누구나가 고령이 되면 체력의 한계와 신체의 기능이 감퇴됨을 느끼지만, 이 현상은 그리스도교의 부활신앙에서 바라보면,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내적 젊음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2 코린 4, 16) 내적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2 코린 5, 17 참조), 나날이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어(에페 4, 13 참조),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2 코린 3, 18 참조) 다윗은 주님께서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 (시편 103, 5)라고 찬미를 드립니다. 옛날 라틴어 미사에서는, “나의 기쁨이신 천주께서 나아가리이다.” (Ad Deum qui laetificat juventutem meam)라고 외치며 하느님을 향한 찬미로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내적 젊음이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젊음이며, 하느님께서 그것에 기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내적 젊음은 어린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겸허한 마음에 머무릅니다. (마르 10, 14-16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가 하느님 자녀의 본래의 모습을 비추는 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주위로부터 사랑만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이’ (마르 9, 42) 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현대와 같은 효율, 건강, 성공이 우선시 되어, 한편에선 약자가 차별되고 패배자가 소외되는 사회에 있어서, 고령이 되어도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2 코린 12, 10)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11. 그리스도인의 심플라이프

단사리(斷捨離)는 요가의 단행(斷行), 사행(捨行), 이행(離行)에 대응하여, 새롭게 들어오는 불필요한 것을 ‘끊고’, 이미 지니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단언했습니다. (필리 3, 8 참조) 이 정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단사리의 비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마태 6, 21) 부에 대한 집착과 싸우고, 더 많이 탐내는 것을 멈추고, 허영심과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에서 해방되어, 마음 가운데에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의 거처를 만듭니다.

사도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은 “자족할 줄 알면 큰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1 티모 6, 6-7) 『종활』에 있어서, 주님께 신뢰를 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플라이프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이며, 이웃들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이기에 하느님의 섭리에 봉사하는 이가 됩니다. (『사목현장』 69 참조) 언젠가 필요한 때를 위하여 무엇이든 물건을 쌓아두는 자세보다도, 하느님의 사랑에 머무르기 위하여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미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기쁨에 만족하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마태 6, 33)을 찾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1 코린 10, 31) 행합니다.

12. 자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인생의 마지막에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진 것을 기념하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의 본기도에서는, 믿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향한 희망을 드러내며, 성모와 함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사리오의 ‘영광의 신비’ 제 4 단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 46)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라틴어로 성가 ‘살베 레지나’나, 전례성가 ‘자비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예덴동산에서 추방된 하와의 자손으로, 이 땅을 떠돌아다니며 눈물의 계곡에서 절규하는 우리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뵈옵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들이 약하고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소외되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 곁에 다가오시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주십니다.

중세의 수사님들이 서로에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그대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인사는, “메멘토 도미니” (그대의 주님을 기억하라)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운명인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마라’라는 것은, ‘항상 생명의 주인을 잊지마라’라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앞으로 불안을 더해가는 이 시대에,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징표로서, 그리스도인의 『종활』을 시작합니다.

“마라나 타(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1 코린 16, 22-23, 묵시 22, 20-21 참조)

2022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